

인천신용보증재단, 자립 청소년에 후원금 전달

✎ 김기준 기자 | ⓒ 승인 2024.11.24



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(오른쪽)이 대원복지재단 향진원에서 청렴교육을 진행한 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. <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>

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교육장에서 자립 청소년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,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4일 알렸다.

인천신보의 재능기부는 단순한 금전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재단 및 직원의 특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다.

전무수 이사장은 "미래 성장 동력인 자립 청소년에게 금융 피해 예방 교육부터 청렴 교육을 하게 돼 감사하다.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 지원 등 지역 사회가 원하는 책임경영을 하겠다"고 말했다.

김기준 기자 gjkim@kihoilbo.co.kr



김기준 기자 gjkim@kihoilbo.co.kr